

스페인어 보고 증거성 부사 *dizque*의 형태-통사적 특성*

곽재용

부산외국어대학교

곽재용(2023), 스페인어 보고 증거성 부사 *dizque*의 형태-통사적 특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2), 1-33.

초록 본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고 증거성 전락(Aikhenvald, 2004)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부사 *dizqu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스페인어 *dizque*는 고어 동사 *dezir* 'say'의 3인칭 단수형인 *dize*의 어미 탈락형인 *diz*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 *que*의 혼성어로 간주한다. Travis(2006)는 간접 화법이나 전문(傳聞)을 표시하는 것이 *dizque*의 주요 기능이며 {*dicen que*} 'they say that' 또는 {*se dice que*} 'it is said that'으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의미-화용적 확장 용법으로 정보를 의심스럽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때는 그러한 바꾸어 쓰기의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dizque*가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에서 보고 증거성 전락으로 사용되는 부사이며 그 통사적 분포는 분할-CP 구조와 삽입 병합에 기초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핵심어 보고 증거성 전락, *dizque*, 부사, 혼성어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들어가는 말

전통적으로 발화 동사(*verba dicendi*)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수행하는 언어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로 간주된다. Maldonado(1999, 3558)에 따르면 발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각 동사의 주어와 (등장하는 경우) 간접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전형적으로 [+human] 자질을 가지며, 둘째, 비사실적 동사(non-factive verb)의 특성을 가지므로 자신의 보어로 등장하는 내포문 명제의 참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다(Grimshaw 2015). 스페인어에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동사들로는 *afirmar*, *asegurar*, *decir*, *declarar*, *negar*, *replicar* 등(Real Academia Española &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2009, 3240)이 있는데 Maldonado(1999, 3558)는 이중 스페인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 *decir*의 특성을 기술하고자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공한다.

- (1) a. El telegrama {dice/*está diciendo}: 《Llego mañana》,
b. El telegrama {dice/*está diciendo} que llega mañana.
- (2) a. En el cartel {pone/*está poniendo}: 《Está reservado el derecho de admision》.
b. En el cartel {pone/*está poniendo} que está reservado el derecho de admisión.

(Maldonado 1999, 3558)

위 (1)-(2)의 예문은 동사 *decir*와 *poner*가 사람, 즉 [+human]의 자질의 행위자 주어를 갖지 않으므로 상태 술어의 문장으로 판단된다. (2)에서 보듯이 동사 *poner*의 의미는 “estar escrito”와 같이 쓰이며, 진행형으로 사용되는 표현(“*está diciendo”와 “*está poniendo”)은 비문법적으로 판단된다.

언어마다 정보의 출처(source of information)를 밝히는 방식은 다양하다. 정보의 출처는 동사, 부사, 삽입구, 전치사구 또는 불변화사(*particle*)등을 사용하거나 인칭(*person*), 양태(*modality*), 수(*number*)와 시제(*tense*) 등의 문법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Aikhenvald(2004; 2007, 220-221)에 따르면 케추

아어나 아이마라어 같은 언어들에서는 정보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문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형태-통사적으로 완전히 문법화된 범주를 통해 정보의 출처를 표시한다. 반면 스페인어의 경우는, {dicen que ...}, {veo que ...}, {supongo que ...}, {el supuesto / presunto ...}와 같이 어휘적 장치(lexical devices)를 사용하여 정보의 출처를 표시한다(Travis 2006, 1269). Aikhenvald (2004, 2007)는 증거성이란 정보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의미하며, 케추아어나 아이마라어와 같은 언어들은 문법적 증거성(grammatical evidentials)을 갖는 언어이지만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는 증거성 전략(evidentiality strategies)을 갖는 언어로 분류하고, 증거성의 유형으로 시각, 감각, 추론, 가정, 보고, 인용을 제시¹⁾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 a. Dice que llegaron tarde.
- b. Dicen que llegaron tarde.
- c. Se dice que llegaron tarde.
- d. Dizque que llegaron tarde.

(Alcázar 2018, 729)

위의 (3a, b, c)에서는 Travis(2006)와 Aikhenvald(2004, 2007)의 설명처럼 「보고(reported)」 증거성 전략으로 동사 *decir*가 사용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3d)의 *dizque*이다. Travis(2006, 1270)는 (3d)의 *dizque*

-
- 1) Aikhenvald(2007, 221)가 제시하는 증거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I. VISUAL covers evidence acquired through seeing.
 - II. SENSORY covers evidence through hearing, and is typically extended to smell and taste, and sometimes also touch.
 - III. INFERENCE based on visible or tangible evidence or result.
 - IV. ASSUMPTION based on evidence other than visible results: this may include logical reasoning, assumption or simply general knowledge.
 - V. REPORTED, for reported information with no reference to who it was reported by.
 - VI. QUOTATIVE, for reported information with an overt reference to the quoted source.

역시 콜롬비아 스페인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증거성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한다. *dizque*는 동사 *decir*에서 파생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간접화법(reported speech)과 전문(傳聞: hearsay)을 표시하고, 종종 {*dicen que*} (cf. (3b)) 또는 {*se dice que*} (cf. (3c))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dizque*가 정보를 의심스럽거나 거짓된 것으로 표시(MacDonald 1990, 41; Donabédian 2001, 423-424; Bybee *et al.* 1994, 180)하는 의미-화용적 확장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dicen que*}나 {*se dice que*}로 바꾸어 쓸 수 없다고 한다. Travis(2006)는 이러한 특성이 간접화법의 특성과 관련지었는데, 그 이유로는 발화 내용을 타인의 것으로 간주하면 화자는 제시된 정보 자료에서 자신을 멀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발화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의심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Travis(2006)는 *dizque*의 사용 범위가 순수히 증거성 표시로 기능하는 것에서 인식 양태 표시(marker of epistemic modality)로 확장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비록 *dizque*가 증거성 전략의 기능과 인식 양태의 기능, 즉 어떻게 화자가 정보를 획득하였는가를 표시하는 것과 화자의 정보에 대한 믿음(commitment)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가능하지만, Travis(2006)는 이 두 기능 모두 ‘의심’을 함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발화를 통해 얻은 정보가 직접 관찰해서 얻은 정보보다 믿을 만하지 않다는 점(Romaine & Lange 1991, 232)에서 비사실성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결국 Travis는 (3b), (3c)의 내포절 명제를 믿기지 않는 정보로 간주하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는 것이 (3d)의 *dizque*라고 주장하고 이를 인식 양태라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스페인어에서 (3b)와 (3c)가 증거성 전략으로서 비인칭 구문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운데 이 두 표현과 바꾸어쓰기가 가능한 (3d)의 증거성 전략의 유형이 어떻게 「보고」 증거성 용법에서 인식 양태성을 드러내는 의미-화용적 확장 용법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원인으로 어떤 형태-통사적 기제가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I 장에서는 *dizque*가 보여주는 역사적 발전과정과 Real Academia Española(앞으로

RAE로 표기)와 같은 규범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dizque*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관찰되는 그 제반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dizque*를 문장부사와 구성소를 수식하는 삽입 부사로 주장하기 위한 형태-통사적 분석을 진행하고 IV장에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dizque*의 일반적 특성

1. *dizque*에 대한 규범문법적 시각

RAE(2014)는 *dizque*를 다음과 같이 표제어로 등재하고 그 용법을 비교적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dizque

De *dice que*.

1. m. Dicho, murmuración, reparo. U. m. en pl.
2. adv. *Am.* Al parecer, presuntamente.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Eran protestantes dizque muy civilizados. [멕시코 예문]
b. El otro día se estaba rasgando este maldito las vestiduras porque dizque unos sicarios habían matado a un senador de la República. [콜롬비아 예문]
- (5) a. Frente al prócer se alzaba en su desmesura idiota el tren elevado, el dizque metro, inacabado. [콜롬비아 예문]
b. Mandonea fanfarrón el dizque actuario, ahuecando la voz para que suene solemne. [멕시코 예문]
- (6) *Al preguntarle un amigo [...] cómo estaba, dizque QUE le contestó: “envejeciendo dulcemente”. [콜롬비아 예문]

(RAE 2005)²⁾

2) 본 연구에서 예문에 사용한 밑줄은 모두 본 연구가 부여한 것임을 밝힌다.

RAE(2014)와 RAE(2005)는 *dizque*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 그리고 (4)에서는 보듯이 ‘al parecer’나 ‘supuestamente’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사용된다는 기술에서 공통적인 면을 보인다. 그런데 명사와 부사 두 가지의 용법만을 제시하는 RAE(2014)의 기술과 달리, RAE(2005)는 *dizque*가 형용사와 접속사의 용법도 가진다고 보고 (4)-(6)과 같은 예시를 제공한다. RAE(2005)는 (5)에서 *dizque*는 ‘presunto’나 ‘pretendido’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 소개하고 명사에 선행하며 불변화 요소라고 그 형태-통사적 특성을 소개한다. 아울러 어원에 대한 설명에서는, RAE(2014)의 ‘De dice que.’ 보다 더 구체적으로, *dizque*가 동사 *decir*의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형인 *dice*의 고어 형태인 ‘*diz*’와 접속사 *que*로 이루어진 혼성어라고 기술한다.

RAE(2005)는 {*diz que*}와 같은 표기 방식이 아닌 *dizque*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표기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일반 언어 사용자들이 *diz*를 동사, 그리고 *que*를 접속사로 각각 이해하여 독립된 어휘 범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며 혼성어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AE(2005)는 (6)의 문장이 비문법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dizque*가 접속사 *que*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일 형태의 접속사가 반복되어 비문법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dizque*를 *dicen*과 동일한 요소로 오인하여 비문법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³⁾ 따라서 첫 번째는 혼성어가 접속사의 특성을 갖는다는 기술이며, 두 번째는 혼성어가 동사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기술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7) a. Al preguntarle un amigo al expresidente Alfonso López Michelsen cómo estaba, dizque que le contestó: «envejeciendo dulcemente».
- b. Al preguntarle un amigo al expresidente Alfonso López Michelsen cómo estaba, éste le contestó: «envejeciendo dulcemente».

(López-Izquierdo 2006, 486)

3) RAE(2005)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En la forma de este adverbio ya se incluye la conjunción *que*, por lo que no es necesario repetirla, como hacen algunos hablantes al interpretar erróneamente que *dizque* equivale a *dicen*.”

López-Izquierdo(2006)는 (6)과 동일한 출처의 문장인 (7a)를 제시하면서 *dizque*는 화자가 전직 대통령의 응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지만, (7b)는 화자가 전직 대통령의 응답을 목격했거나 그 내용을 제삼자에게서 들었을 수 있다고 기술한다. 즉 (7a)는 “대답했습니다” 또는 “대답했다고 합니다”와 같은 해석을 갖는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 *dizque*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7b)는 「보고」 증거성 전략은 없다. 결국 (7a)는 *dizque*의 내부에 이미 접속사가 출현해서 *que*의 반복이 불가능한 것(RAE 2005)이 아니라, 내포된 명제를 이끄는 접속사 *que*를 선택하는 술어의 부재를 비문법성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⁴⁾ 통사 규칙은 단어 구조를 분석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다는 어휘 완전성 가설(Lexical Integrity Hypothesis)(Bresnan & Mchombo(1995))에 비추어 보면, (6)에서 접속사가 두 번 쓰였다는 판단, 즉 *dizque*의 내부에 혼성어의 구성요소인 *que*가 문장에서 접속사로 기능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러한 *dizque*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은⁵⁾ 1) 중세 스페인어 동사 *dezir*의 3인칭 단수형인 *dize*의 ‘-e’의 어미 탈락형(Eberenz 2004, 141)과 접속사 *que*로 이루어진 혼성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2) 이러한 혼성어의 특성을 대부분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 접근하지만, Olbertz

4) 한편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 211)는 모문절에 *que*를 선택하는 동사가 없음에도 문법적인 사례로 아래 (i)을 제시하는데 이 문장이 문법적인 이유는 *que*의 존재가 화자가 목격한 사건을 지시하며 문장의 명제 내용은 화자에 의해 이미 사전에 확인된 것임을 표현한다고 한다.

(i) (Oye) que el Barça ha ganado la Champions.

(7b)는 직접 증거성을 나타내지만 (i)은 간접 증거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 211)는 Faller(2002, 2006)의 의견에 따라 (i)의 *que*를 간접/보고 증거성 표지(indirect/reportative evidential)로 기능하는 발화수반 운용자(illocutionary operator)로 기능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5) 각 연구들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예문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Olbertz(2005)는 에콰도르 스페인어, Olbertz(2007)와 Magaña(2005), De la Mora and Maldonado(2015)는 멕시코 스페인어, Travis(2006)는 콜롬비아 스페인어, Babel(2009)은 볼리비아 Valley지역 스페인어, Dankel(2017)은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스페인어, Grajales(2017)은 콜롬비아 Medellín지역 스페인어 등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스페인어의 자료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

(2007, 2022)는 어휘화(lexicalization)로 주장하기도 하며, 3) 스페인어가 증거성과 관련된 문법적 범주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dizque*의 연구는 증거성 전략의 의미-화용적 확장 용법으로 접근(De la Mora & Maldonado 2015; Travis 2006, Miglio 2010))을 시도하지만 이러한 특성에 덧붙여 통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3; 2017)도 있다.

본 연구는 혼성어 *dizque*의 형성에 참여하는 *que*는 접속사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4)-(6)에서 부사로 기능한다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3d), (4b)와 같이 문두에 출현하는 *dizque*는 문장부사로 기능하고 그 외에 명사나 형용사 부사(구) 등을 수식하는 경우는 모두 구성소를 수식하는 삽입 부사로 기능하는 특성을 III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dizque*에 대한 역사적 시각과 오늘날에 관찰되는 제반 현상

Miglio(2010)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널리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는 *dizque*는 역사적으로 이미 스페인에서 13세기부터 비인칭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부터 그 사용 빈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Miglio(2010, 12-13)은 Alfonso X의 글인 (8)에서 사용되는 {*diz que*}의 *diz*가 형태적으로 직설법 현재 3인칭 단수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외견상 명시적으로 인칭 주어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비인칭에 가깝다고 한다. 따라서 (8)의 {*diz que*}는 오늘날의 *dizque*가 갖는 혼성어의 특성, 즉 부사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8) El abbat de Sant Andres de Spinareda por si e por so conuento se me enujo querellar e diz que quando quemara la su eglezia que quemaran hy los priuilegios que [...] (CDE, Documentos castellanos de Alfonso X, 1200s)

(Miglio 2010, 13)

Alfonso X의 산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법적 주어의 의미적 상실 또는 비전형적인 주어의 사용은 문법적 주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8)과 같이 문법적 주어가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the documents, the law, etc says that [...]”

과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맥락으로 그 의미적 주어를 파악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Miglio(2010)는 이러한 용법이 현대 스페인어의 기준에서 보면 주로 “in the law it is said”와 같이 처소의 부사구와 비인칭 수동으로 이루어진 구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우리가 앞서 *decir*의 주어가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는 (1)의 용법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8)에서 {*diz que*}는 동사와 접속사가 각각 독립된 품사적 지위를 가지는 용법이다. (8)의 용법은 주어의 의미적 자질이 [-human]이라는 점에서 (9a) - 주어를 ‘la vieja ley’로 보는 경우임 - 와 동일한 유형을 보인다(cf. 본 연구의 (1)). 특히 *dize* 형태는 어미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칭 동사로서의 형태가 더욱 두드러진다. Miglio(2010, 14)는 또한 (9b)에서 사용된 {*diz que*}는 “they say that, it is said that”으로 해석되는 비인칭 형태(impersonal form)라고 강조한다. Miglio는 이 용법을 오늘날 스페인어의 {*dicen que*}, {*se dice que*}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9) a. E porende fueles menester que les veniese luz & claridat que les
alunbrasen enla tenjebla enque estauan & desto auemos figura
enla vieja ley /E dize que Jacob & el angel que lucharon toda la
noche
b. E la lucha que fezieron diz que fue de noche

(Miglio 2010, 13)

외견상 (9b)를 ‘La lucha que hicieron {*se dice que*}/ {*dicen que*} fue de noche. (그들이 벌인 싸움은 밤에 일어났다고 한다)’와 같이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맥락상 정보의 출처가 명시적으로 ‘la vieja ley’이므로 「보고」 증거성 전략이 아니라 「인용」 증거성 전략 - ‘La vieja ley dice que la lucha que hicieron fue de noche’ - 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록 Miglio가 이 용법을 오늘날 스페인어의 {*dicen que*}과 같은 비인칭 구문이라고 하지만, (8), (9a,b)는 형태적으로 3인칭 단수인 *diz*가 사용되었으므로, 오늘날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는 임의적 3인칭 복수 구문, 즉 비특정적 사람이 주어로 해석되는 {*dicen que*}의 지위

는 갖지 않는다.⁶⁾

한편 (9b)의 문장을 ‘La lucha que hicieron *dizque* fue de noche.’와 같이 오늘날의 *dizque*로 분석하여 ‘그들이 벌인 싸움은 밤에 일어났다고 한다’의 「보고」적 해석과 더불어 ‘그들이 벌인 싸움은 아마도 밤에 일어났다.’와 같이 ‘al parecer’나 ‘supuestamente’와 같은 부사(구)의 용법(RAE 2005; 2014)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Miglio(2010, 18)는 단호하게 중세 스페인어에서는 이러한 의미-화용적 확장과 관련된 용법이 없었으며 증거성 전략만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Alfonso X가 매우 많은 문헌에서 {*diz que*}를 연어(collocation)처럼 사용하였다고 Miglio(2010, 14)가 설명하는 점에 비추어, 본 연구는 (9b)가 이러한 증거성 전략으로서 비인칭 구문의 색채를 갖는 이유는 비록 오늘날과 같은 혼성어 형태로 당시에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인용」 증거성 전략에서 정보의 출처가 단수인 경우 3인칭 단수형으로 *dize*와 *diz*가 혼용되며, 소위 ‘정보가 인용된다’는 수동적 의미로 인해 통사적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던 관계가 형태-통사적 모호성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Miglio가 제시하는 12세기 예문에는 라틴어를 혼용하면서 라틴어 수동 구문을 {*diz que*}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0) **Unde dicitur:** At illi [continuo], relictis retibus (et navi) secuti sunt eum. * En ribera daquel mar farto Jhesu Cristo .v. mil omnes de .v. panes e .ii. peces. * En esta ribera a un castiello **que dizen** Corazaym, o **diz que** sera nodrido el Antechristo e(n) el enganador del sieglo. (CORDE, Alerich, Fazienda de Ultra Mar, ca. 1200)

(Miglio 2010, 14)

6)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소위 임의적 복수 구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해당 동사의 주어는 사람[+human]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ia)에서는 *decir* 동사의 3인칭 복수의 주어가 ‘*los libros*’이지만 (ib)는 ‘*Algún libro nos dice cosas interesantes*’와 같은 해석을 가질 수 없다.

(i) a. Los libros dicen cosas interesantes.
b. Dicen cosas interesantes.

(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 1999, 1742)

위 (10)에서 라틴어 처소구 ‘Unde’는 의미적으로 비인칭 수동형 ‘dicitur’⁷⁾와 양립이 가능하며 이는 (8)을 통해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동형인 ‘dicitur’에 의미적 등가성을 가지는 용법으로 (10)에서 능동형인 {diz que}가 사용되는 것이다.

한편 Miglio(2010)는 (10)의 {que dicen}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지만 (10)에서 {diz que}와 함께 {que dicen}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이에 관해 본 연구는 {que dicen}이 비록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인용」 증거성의 전략 - ‘un castiello que dicen Corazaym(Corazaym이라고 하는 성)’ - 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다(Jayaseelan 2019, 9). Miglio(2010, 15)는, Nebrija(1492)와 Juan de Valdés, Covarrubias(1661), RAE(1732)의 언급⁸⁾에 기

7) 다음 라틴어 예문을 보자.

- (i) Dicit te venisse. ‘He says that you have come.’
- (ii) Tu dicis venisse. ‘You are said to have come.’
- (iii) Dicitur te venisse. ‘It is said that you have come.’

Gleason(2016, 267)은 위 (i)-(iii)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i)의 경우 주절 동사 dicit(‘he says’)는 보어로는 부정사구 venisse(‘to have come’)을 취하고 있으며 이 부정사구의 의미적 주어는 대격인 te(‘you’)가 사용되고 있다. (ii)와 (iii)은 주동사의 수동화가 두 가지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ii)는 인칭 수동으로서 부정사구의 주어가 주격으로 사용되면서 문장 전체에서 주어로 기능하고 (iii)은 비인칭 수동으로 자동 3인칭 일치(default third-person agreement)을 보여준다. 즉 (10)의 ‘dicitur’는 비인칭 수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 8) Miglio(2010, 15)의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Although Nebrija (1492) does mention the form, some of the first grammarians of Spanish maintain that the form *diz que* is a shortened version of dicen que ‘they say that,’ (i.e., a plural form). This is what Juan de Valdés (quoted in López-Izquierdo, 2005, from *Diálogo de la lengua*, 1526) says: “También dezimos *dizque* por *dizen*, y no parece mal [...],” “We also say *diz que* for they say, and it is considered correct [...]” However, Covarrubias, in his 1611 *Tesoro de la lengua castellana o española* says of *dizque*, states: “Palabra aldeana que no se debe usar en corte. Vale tanto como dicen que,” “Peasant word that must not be used at court. It is the equivalent of ‘they say.’” [...중략...] The Real Academia’s *Diccionario de Autoridades* (1732), on the other hand, still has the meaning of *dizque* as equivalent to the plural form of the verb ‘to say’ (i.e., *dicen que* ‘they say’). 참고로 Miglio(2010, 15)가 인용한 López-Izquierdo의 문헌의 실제 출간 연도는 2006이다. 본 연구의 참고문헌으로는 2006년에 출간된 것을 사용하였다.

초하여, 「보고」와 「인용」의 유형에 대한 구분은 없이 증거성 전략으로 [dicen+ que]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1) a. El número 7 también se relaciona con la creación, ya que en la Biblia se dice que Dios creó el mundo en 7 días.⁹⁾
 b. La Biblia dice que Dios creó el mundo en 6 días y descansó el día séptimo.¹⁰⁾

(11a)는 처소구로 기능하는 ‘en la Biblia’로 인해 ‘se dice’는 비인칭 수동으로 해석되며 (11b)는 주어가 [-human]인 ‘La Biblia’이므로 통사적으로는 능동형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상태 수동으로 해석이 된다. 실질적으로 [en XP + dicen que]과 같은 유형은, 비록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12)에서 ‘dicen’이 쓰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 (12) a. En la Constitución dicen que Macedonia es un país de [...] [스페인 San Sebastián]¹¹⁾
 b. En la Constitución dicen que sus derechos son prevalentes y [...] [콜롬비아]¹²⁾
 c. En la ley dicen que “es el instrumento que expresa la voluntad libre y [...]”. [콜롬비아]¹³⁾

(12)의 모든 예문은 (13)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cf. (11a,b)) 그러나 Miglio (2010)가 [dicen+que]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12)와 (13)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9) 자료출처: <https://epoje.es/significado-del-numero-7-en-la-biblia/#google_vignette>

10) 자료출처: <<https://epoje.es/dios-y-el-numero-7/>>

11) 자료출처: <https://www.naiz.eus/eu/hemeroteca/gara/editions/2015-05-31/hemeroteca_articles/queremos-una-division-clara-entre-albaneses-y-macedonios>

12) 자료출처: <http://leyes.senado.gov.co/proyectos/images/documentos/Textos%20Radicados/Ponencias/2013/gaceta_967.pdf>

13) 자료출처: <<https://archivo.lapatria.com/opinion/columnas/flavio-restrepo-gomez/el-malleto-oxidado-de-los-indignos>>

- (13) a. La Constitución dice que Macedonia es ...
b. La Constitución dice que sus derechos son prevalentes y [...]
c. La ley dice que “es el instrumento que expresa [...]”

본 연구는 (12)와 같은 현상은 {se dice que}와 {dicen que}를 증거성 전략이란 측면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성을 갖는 표현으로 판단하여 {dicen que}를 「인용」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하는 현상으로 판단한다. 이는 중세부터 [decir+que]의 연속체인 {diz que}가 종속절을 취하는 구문의 형태로서 사용되면서 「보고」 증거성 전략과 「인용」 증거성 전략을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형태적으로 혼성어의 형태인 *dizque*로 이어진 변화는 *diz*가 가지고 있던 동사의 자질, 특히 ‘-e’의 탈락으로 인해 인칭과 수의 형태론적 자질 (Luquet 1992)¹⁴⁾이 사라지게 되고 *que*가 가지고 있던 접속사로서의 자질, 즉 종속절을 이끄는 자질도 모두 상실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dizque*는 *decir*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인 *dize*의 어미 탈락형과 접속사로 이루어진 혼성어이며 이 과정은 <diz que → dizque>로서 정보의 출처가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중세 스페인어 *diz*의 3인칭 단수와 관련된 형태론적 특성은 명시적으로 정보 출처를 드러내지 않는 「보고」 증거성과 인용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인용」 증거성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dizque*가 「보고」 증거성과 관련되는지 「인용」 증거성과 관련되는지의 판단은 맥락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점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에서 「보고」 증거성과 더불어 의미-화용적 확장까지 이르게 된 *dizque*가 어떠한 형태-통사적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4) Luquet(1992, 599)은 “la *no persona*, se expresa por medio de un *no morfema*”라고 언급하면서 3인칭 단수를 표시하는 문법적 형태소 부재가 인칭 부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III. 증거성 전략으로 작용하는 *dizque*의 형태-통사적 특성

1. *dizque*의 의미는 {se dice que}인가 {dicen que}인가?

대표적인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3a)에서 주어
가 외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사전 맥락(previous context)이 없다면 주
어는 사람이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즉 (3a)는 사전 맥락에서
사람이 아닌 잠재적 주어가 있다면 「인용」 증거성의 정보 출처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는 동사 *decir*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주어가 [+/-human] 여부에 따라 술
어의 성격이 바뀌는데 이러한 특성은 그러나 (3b)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 (3) a. Dice que llegaron tarde.
- b. Dicen que llegaron tarde.
- c. Se dice que llegaron tarde.
- d. Dizque llegaron tarde.

앞에서 우리는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 *dizque*가 (3d)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3b)와 (3c)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Travis(2006, 1270)가 설명한 바를 살펴보았
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3b)의 경우 주어는 총칭적 해석을 갖는 것이 아니라
‘Alguien dice que llegaron tarde.’와 같이 주어가 비한정적/비특정적 해석
(indefinite/unspecific reading)을 갖는다. 이는 문법적으로는 3인칭 복수이지
만 의미적으로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과 같이 일반적으로 복수형이 갖는
의미적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3b)는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비특정적 주어를
갖는(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 1999, 1739-1742; Suñer 1983, 189) 임
의적 복수 구조(arbitrary plural construction)(Jaeggli 1986)로 일컬어진다. 그런
데 의미적으로는 (3b)와 (3c)가 등가성을 갖지만, 접어 *se*가 출현하는 (3c)는 독
특한 의미적 특성을 문장에 부여한다.

- (14) a. En esta oficina se trabaja a destajo.
- b. En esta oficina trabajan a destajo.

(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 1999, 1739)

처소구 ‘En esta oficina’가 등장하는 경우 (14a)에서는 의미적 주어로 발화자의 포함이 가능하지만(Jacgli 1986, 53-54) (14b)에서는 의미적 주어로 발화자의 포함이 불가능하다. 임의적 복수 구조에서는 원천적으로 발화자가 문장의 의미적 주어로 포함이 불가능하지만, 비인칭 *se*가 사용되는 경우는 (14)와 같이 특정 맥락에서 발화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 RAE(2005; 2014)는 어원적으로 3인칭 단수 *dize*의 어미 탈락형인 *diz*가 혼성어 *dizque*의 형성에 참여한다고 하였지만, 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1999, 1742)는, Miglio(2010, 15)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3인칭 복수형 *dicen*으로 이루어진 연속체 {*dicen que*}의 음성 축약(phonetic reduction)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친 혼성어를, 다소 과도하게, 현대 스페인어의 축약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3b)와 (3d)를 모두 통사적으로 복문이라고 기술하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dizque*를 사전상의 독립된 단어로 등재시킨 RAE(2005; 2014)와는 확연히 그 입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1999)는 혼성어 *dizque*의 원형으로는 {*dice que*}도 {*se dice que*}도 아닌 {*dicen que*}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⁵⁾ 본 연구는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는 {*dicen que*}의 보어로 등장하는 정보는 화자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 정보는 「보고」에 의해 획득된 것이므로 화자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dicen que*}를 혼성어 *dizque*의 원형으로 보는 것은 의미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적어도 {*se dice que*}는 발화자의 포함 가능성이 존재하므로¹⁶⁾ *dizque*의 원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2. 어휘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dizque*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 2017)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dizque*를

15) Kany(1944, 168)도 *dizque*는 {*se dice que*}와 {*dicen que*}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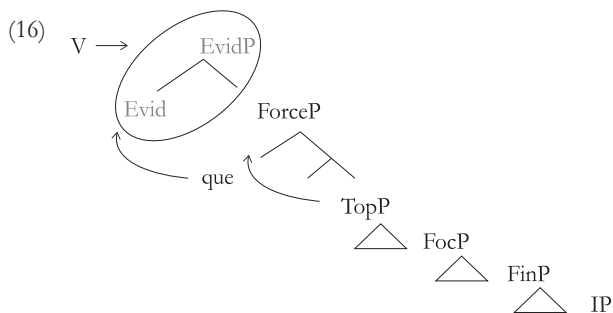
16) 본 연구는 {*se dice que*}가 의미적으로 발화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비인칭 구문으로 판단하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만, Cruschina(2015, 8)는 이탈리아어의 경우 {*si dice che* (‘one says that’)}에서 접어 ‘*si*’가 탈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문법화의 한 증거로 보았다.

문법화의 결과로 보는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먼저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 226-229)에서는 *dizque*가 다음의 세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문법화의 결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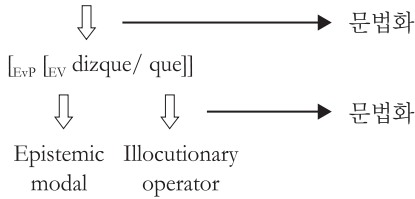
- (15) a. (Syntactic) Reanalysis: (Upwards) categorial change of lexical or functional material,
 b. (morpho) phonological reduction (from ILLE to le, for instance),
 c. semantic bleaching (Hopper & Traugott 1993, 87): loss of a semantic property (demonstrative property, in the case of articles) or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reanalysed element.” (Roberts & Roussou 2003, 219).

(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3, 226)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는 *dizque*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혼성어를 구성하는 동사와 접속사가 각각 원래 가지고 있던 범주 자질을 상실한 점(15a)에 해당하고, (15b)의 조건은 앞에서 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 (1999, 1742)이 보여주는 음성 축약에 대한 견해와 다르지 않으며, (15c)의 조건은 동사 *decir*가 가진 원래의 의미가 흐려지게 되어, 순수하게 「보고」 증거성 전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화용적 확장이 발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운용자(Operator) 핵이며 종속접속사의 자질을 갖는 상위 C의 핵(Roussou 2003, 78)이라고 판단하고, 아래 (16)과 같은 도출구조와 더불어 (17)과 같이 *dizque*를 {*dicen que*}에서 파생된 문법화의 결과로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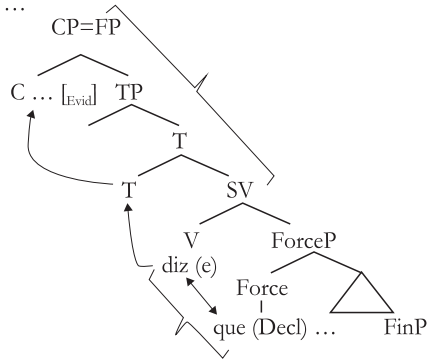


(17) [VP dicen [CP que ... IP]]



그런데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 213)는 중세 스페인어에서 사용된 두 형태인 {*diz que*}와 *dizque*는 모두 증거성 전략에서 {*dicen que*}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se dice que*}으로도 작용한다고 견해를 바꾸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음성 축약이라는 언급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7)가 문장부사로 기능하는 *dizque*를 통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형상 구조에서 고전 형태인 *diz(e)*를 사용¹⁷⁾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8) (Speech Act Phrase) ...



(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7, 221)

*dizque*의 원형을 현대 스페인어의 {*dicen que*}라고 본다면 축약의 개념을 사용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미 중세 스페인어에서부터 *dize*의 어미 탈락이 이루어

17) 즉 {*dize que*}나 {*diz que*}는 모두 *dizque*로 도출된다는 가정이며 이러한 도출은 음성 축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진 상태에서 <diz que → dizque>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적 관점에서는 어미 탈락은 존재하지만 현대 스페인어의 {dicen que}를 혼성어의 출발점으로 가정하는 것(cf. (17))은 복수형 어미 ‘-en’의 어미 탈락을 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세 스페인어에서는 어미 ‘-e’의 탈락이 3인칭 단수형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Eberenz 2004)이었다. 위 (18)과 같은 가정은 마치 <dize que → dizeque → dizque>와 같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세 후반에 다시 마지막 모음인 ‘-e’가 복원¹⁸⁾되었음에도 {diz que}가 살아남아 오늘날의 혼성어 *dizque*가 되기까지 가능한 이유는 더 이상 인칭이 구현된 동사의 용법(ex: *diceque, *deciaque, *dijoque (Cruschina & Remberger 2008))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Roberts & Roussou(2003)는 기본적으로 범주의 재분석으로 얻어지는 기능 범주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문법화라는 입장이므로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 213)는 *dizque*를 기능 범주²⁰⁾로 보아 문법화로 주장하는 것이다. 재분석이 범주의 변화와 구조 단순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Demonte & Fernández-Soriano는 (17)과 (18)을 구조 단순화라고 보는 것이다.

*dizque*를 문법화의 결과로 주장하는 연구들(De la Mora & Maldonado 2015; Travis 2006)은 처음에 *dizque*가 증거성 표지로 사용되다가 의미-화용적 확장으로 변화해가면서 증거성 표지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는 아래의 (19)에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18) Miglio(2010, 15)는 마지막 모음의 복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forms *dize* and *diz*, along with other words with the same phonological make-up, coexist for a period, but usually the final -e is restored. The restoration of apocoped vowels in words such as *noch* for *noche* ‘night’ or *nuef* for *nueve* ‘nine’ is one of the often-cited characteristics of Alfonsine prose.”

19) Miglio(2010, 16)는 {diz que}의 용법이 13세기에 「인용」과 「전문 표지」로 기능하기 시작하여 14세기에는 그 형태적 특성으로 인해 인칭 주어 용법과 비인칭 용법이 혼용되었지만 거의 비인칭 구문의 성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는 완전히 동사와 접속사의 기능을 상실한 혼성어의 용법으로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Miglio(2010)는 문법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20) Miglio(2010, 25)는 문법화를 통해 얻은 부사적 불변화사(adverbial particle)라고 하였다.

양태적 의미를 가지며 불확실, 불신감, 거리 또는 추정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 (19) a. Tzvetanov conocía demasiado esas provocaciones para imposter una conversación dizque circunstancial, por lo que no amagó ninguna respuesta. (CORPES. México. 2011)
- b. “¡Pero qué impuntuales son mis dizque amigas!” pensaba Laura enojada. (C.M.2011)
- c. Me pidió prestadas esas tierras dizque para sembrar hortaliza. (CORPES. México. 2012)
- d. Yo me había vuelto una mujer tan práctica, tan hábil para dizque manejar sus sentimientos, para dizque conservar la sangre fría... (CORPES. México. 2009)
- e. me tocó ver cómo empezaron a dizque extorsionarlo a la salida. (CORPES. México. 2008)
- f. Déjame decirte más: tú no me gustas mucho. Dizque²¹⁾ independiente, intelectual de los 90. Joven, libre, pero no tanto. Dependes de tus padres... (CORPES. México. 2003)

(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7, 218)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가 제안하는 (17)-(18)은 기본적으로 문장부사의 도출 구조이므로 (19)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20)과 같이 Griffiths (2015)의 삽입 동사 구조(Parenthetical Verb Construction: PVC)의 가정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에서는 *dizque*의 특성 중 삽입과 관련된 설명은 전혀 없었지만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에서는 연구의 출발점으로 *dizque*가 삽입 동사에서 문법적인 증거성 표지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의 사실은 스페인어의 *dizque*는 혼성어이므로 (20b)의 PVC처럼 동사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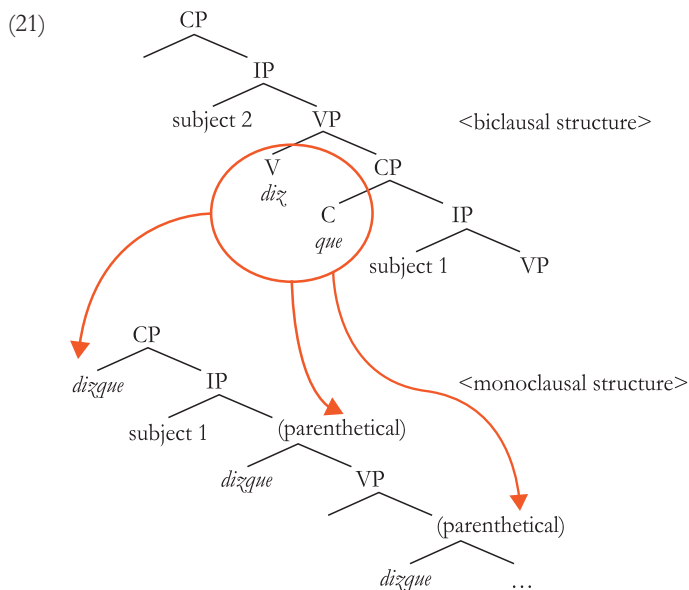
21) 이 표현에 대해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 218)은 “Este *dizque* modificador de constituyentes puede remitir a una persona específica, incluyendo al hablante/oyente, como en [(19f)]”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Eres una persona *dizque* independiente, intelectual de los 90.’과 같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되어 화자나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 a. John will, I fear, be late.

b. $[_{CP} [_{TP} \text{John will } [_{VP} <_{Par} \text{Par}^u [_{CP} \text{PVC I fear}] > [_{VP} \text{be late}]]]]^{22})$

(Demonte & Fernández-Soriano 2017, 221)

한편 Remberger(2015, 35)는 스페인어의 *dizque*는 음성 축약으로 인해 형태적으로 탈범주화가 이루어졌으며 통사적으로는 부사로 재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Remberger(2015)는 이러한 특성을 문법화의 증거로 보았는데 특히 음성 축약을 가정하는 점은 Fernández-Soriano & Táboas Baylín(1999)와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와 동일한 의견을 밝힌다. Remberger(2015, 37)가 제안하는 내용을 *dizque*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7)는 (18)에서 복문구조(biclausal structure)에 기반하지만 Remberger(2015, 37)는 (21)을 통해 *dizque*가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단문구조(monoclausal structure)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22) (20b)에서 기호 '< >'는 삽입 병합(parenthetical merge)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Griffiths(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dizque*는 문법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부사일까?

Olbertz(2022, 725)는 *dizque*를 문법화 요소로 주장하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내용들 중 1) 하나의 단어로 단일화(univerbation), 2) 의미변화, 3) 부정의 가능성 상실, 4) 접속사 *que*에 후행할 가능성(ex: *que dizque*²³⁾) 등이 있는데 이 조건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자세히 보여준다. 먼저 *dizque*는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이며 문법화나 어휘화 모두 축소화 과정이 있다는 점(Lehmann 2002, 13)과 *diz*와 *que* 두 단어가 합쳐져서 부사로 품사 변화가 일어나면 의미변화를 수반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아울러 부사의 품사적 지위 획득으로 인해 관계절이나 보어절의 문두에 나타나거나 접속사나 관계대명사에 선행할 수도 있는 유연한 분포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과 관련된 문제는 문법화의 문제가 아니라 아래 (22)와 같이 문법화와 상관없는 부사들에게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현상은 부사의 의미적 특성이지 문법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 (22) a. Dizque no come carne.
b. *No dizque / supuestamente come carne.
c. *No dizque / supuestamente no come carne.

(Olbertz 2022, 734)

Cinque(1999, 124)가 인식 양태 부사는 부정(negation)의 작용역 아래에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22)의 각 예문이 보여주는 문법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성에 입각하여 Olbertz(2007; 2022)는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과

23) 이러한 경우는 접속사 *que*에 후행하는 *dizque*가 문장부사로 기능한다.

- (i) a. Pues como ellos viniesen cansados una mañana de acompañar a su amo toda la noche, muy airados de no sé qué cuestiones que dizque habían habido,
(Fernando de Rojas, La Celestina, ca. 1499-1502)
(Olbertz 2022, 724)
b. Nomás que no me vengan a decir ‘ora que dizque yo se los di a los gendarmes. No ‘s cierto Se los di al inspector Villavicencio y él fue el _que los repartió.
(Alvaro Uribe, Expediente del atentado, 2007, Mexico)
(Olbertz 2022, 730)

달리 *dizque*를 문법화가 아닌 어휘화로 보았다. Olbertz(2022)는 그의 연구에서 원천적으로 Aikhenvald(2004)의 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미 Olbertz(2007, 152)는 소위 증거성 전략에서 화용적 확장으로의 변화는 주관화와 환유적 변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고 문법화가 아니라 어휘화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제 다시 (21)이 보여주는 특성을 보자. (21)의 복문구조에서는 문맥에 따라 모문절에서 subject2를 외현적으로나 비외현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으며 보어절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단문구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기대할 수 없다. 만약 *diz*가 어휘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이며 통사적으로 결손적 성격을 가지면서 명세화되지 않은(unspecified) 요소로 가정한다면, 경우에 따라 복문구조에 참여하는 동사로 기능하거나 음성 축약이 발생하는 경우 단문구조의 부사로 범주 변환이 이루어지는 가변적 기능 범주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²⁴⁾ 물론 *dizque*가 보어를 취하지 못하는 점과 (20)의 PVC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기초로 단문과 복문의 가변적 구조를 가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diz*는 굴절정보를 갖는 동사도 아니며 *dizque*는 사전상에서 부사로 등재되는 요소이므로 (21)과 같이 *diz*를 가변적 성격을 갖는 문법적 범주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dizque*를 어

24) 스페인의 Pop-Rock 그룹인 'La Oreja de Van Gogh'가 2000년에 소개한 노래 'Dicen que dicen'이라는 노래는 다음 (i)과 같은 가사를 담고 있다.

(i) Dicen que dicen que anuncian que existe un peculiar vegetal que hace que te rías con de bruja Avería como la cebolla hace llorar.

만약 'dicen que'의 음성 축약이 이루어져서 *dizque*가 통사부에 가변적으로 구현된다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의 변이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a. *Dizque* dicen que anuncian que existe un peculiar vegetal que hace que te rías con de bruja Avería como la cebolla hace llorar.
 b. Dicen que *dizque* anuncian que existe un peculiar vegetal que hace que te rías con de bruja Avería como la cebolla hace llorar.
 c. *Dizque dizque* anuncian que existe un peculiar vegetal que hace que te rías con de bruja Avería como la cebolla hace llorar.

그러나 적어도 (iic)를 단문구조와 복문구조에서 출현하는 *dizque*의 교차 적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회화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부사라고 판단한다.

Demonte & Fernández-Soriano(2013, 2017)와 같은 통사적 특성에 입각한 연구나 의미-화용적 접근을 취하는 Travis(2006)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가 *dizque*를 문법화 요소로 보는 것은 Aikhenvald(2004: 6)가 증거성을 문법적 범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법적 증거성이 있는 언어는 증거성의 표시가 의무이지만 스페인어는, 앞에서 López-Izquierdo(2006)가 제시하는 (7a,b)의 비교에서 보았듯이, 증거성 표시가 의무적이지 않으므로 증거성과 관련된 해석을 유발한다고 하여 문법화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dizque*의 통사적 위치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서 문장부사로 기능하는 경우 *dizque*는 문장의 첫머리나 주어와 동사 사이에 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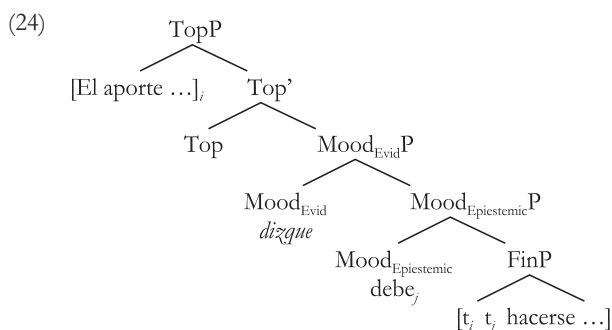
- (23) a. *Dizque* el aporte a la cuenta bancaria debe hacerse el primero de cada mes.
- b. El aporte a la cuenta bancaria *dizque* debe hacerse el primero de cada mes.

(Martínez Vera 2023, 47)

(23a)는 *dizque*가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수식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문장 첫머리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23b)를 통해 알 수 있다. Cruschina & Remberger(2008, 111)와 Cruschina(2015, 19)는 (23b)와 같은 어순은 주어가 주체화로 이동한 결과로 보았다. Cinque(1999)의 견해에 근거하여 보면 (23a)의 *dizque*는 단문구조에서 왼쪽 끝부분에 기저 병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23b)에서는 주어가 *dizque*의 기저 병합 위치를 넘어서 좌측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21)의 단문구조는 (19)의 어순을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dizque*가 문장부사로 출현하는 경우는 TP 보다 높은 층위에 등장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Remberger(2015, 37)의 의견을 받아들여 삽입 부사(parenthetical adverb)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는 *dizque*가 문장부사의 기능을 갖는 경우 그 출현 위치는 Rizzi(1997), Cinque(1999), Speas(2004)에 입각하여 분할-CP구조(split-CP: Rizzi 1997)의 좌현부에 등장하는 기능범주 투사들 중 Mood_{Evidential}의 핵으로 등장하며, 이러한 구조에서 *dizque*에 선행하는 주어가 등장하는 (23b)는 다음과 같은 도출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24)는 다음과 같은 설명적 장점이 있다. 먼저 (23a)는 *dizque*가 형상 구조상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Mood_{Evid}P의 핵에 출현하며 주어는 FinP의 내부에서 실현되는 결과이며, (23b)는 주어가 *dizque*에 선행하는 Top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결과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21)의 단문구조는 비록 (23a,b)에서 보여주는 주어와 *dizque*의 어순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19)의 예문들에서 드러나는 삽입 부사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긍정적 측면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Remberger(2015)와 Griffiths(2015)의 PVC가 제안하는 기본적 가정을 수용하여 문장부사로 좌현부의 기능핵에 출현하지 않는 *dizque*는 다음과 같이 삽입 병합(parenthetical merge)으로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25) \quad [XP <_{\text{Par}} \text{Par}^a [\text{MoodP } \textit{dizque}] > XP]$$

(26) [...] venían soldados a requisar, a buscar dizque un arsenal.

Olbertz(2022, 727)

(19a,f)에서처럼 형용사에 선행하는 위치에 등장하는 *dizque*는 DegP에 삽입 병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면 앞에서 살펴본 (4a)와 같이 *dizque*가 *muy*에 선행하는 위치에 출현하는 구조를 (27a)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9c)는 목적의 부사구 성격을 가지므로 TP로 분석하여 *dizque*가 분할-CP 내부 Mood_{Evid}P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접근으로는 PP에 삽입 병합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²⁵⁾ (19e)의 경우는 우설법 구조에 등장하는 동사원형이 vP의 내부에서 실현된다는 Fábregas(2018, 46)²⁶⁾의 견해에 따라 *dizque*는 (27b)와 같이 vP에 삽입 병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d) 역시 *dizque*가 vP에 삽입 병합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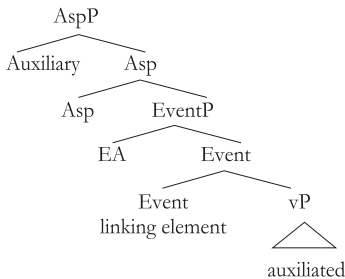
(27) a. [_{NP} protestates [_{DegP} <dizque> [_{DegP} Deg-muy [_{AP} civilizados]]]]
(cf. (4a))

b. [... [_{vP} <dizque> [_{vP} extorsionarlo ...]]]

(19b)는 (26)과 차이를 보이므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26)과 같은 경우는 Ernst(19830, Huddleston & Pullum(2002), Bogal-Allbritten(2013; 2014),

25) 본 연구는 목적의 부정사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 범위의 밖으로 보고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6) Fábregas(2018, 46)는 아래의 우설법 구조에서 전치사는 EventP의 문자화로 볼 수 있으며 동사원형은 vP 내부에 출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설법 구조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 범위의 밖으로 보고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Bogal-Allbritten & Weir(2017)가 문장부사인 평가 부사(evaluative adverb)와 인식 양태 부사(epistemic modal adverb)가 통사적으로 DP를 수식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그 기본적 도출구조는 본 연구의 (25)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19b)는 DP의 내부에서 관사와 명사의 사이에 *dizque*가 등장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Bosque(2011, 31)는 명사에 선행하는 한정 형용사(attributive adjective)는 소절을 이루는 $[_{AP} \text{actor } [_{AP} (\text{famoso})_i]]$ 에서 형용사 *famoso*는 DegP의 지정어로 외현적 이동을 하며 FP의 지정어로 비외현적 이동을 한다고 보았다.

- (28) OPERATOR ... $[_{FP} (\text{Famoso})_i] [D \text{ un } [_{DegP} \text{famoso}_i [_{Deg} \emptyset] [_{AP} \text{actor } [_{AP} (\text{famoso})_i]]]]$

Bosque는 (28)의 명사 선행과 관련된 기능범주의 자질을 인식 양태 자질(epistemic modal features)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28)과 같이 Deg가 영요소로 실현되는 경우 이동을 통한 인식 양태의 해석을 갖지만 (29)와 같이 최상급에서는 Deg의 핵에 어휘요소가 실현되며 이에 대한 양태적 해석은 *dizque*가 DegP에 삽입 병합되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29) Nadie cree que mi *dizque* mejor amiga me traicionó.²⁷⁾

(25)에서는 MoodP를 구체적으로 Mood_{Evidential}P나 Mood_{Epistemic}P로 표기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문장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24)에서처럼 Cinque(1999)가 제안하는 위계에 근거하여 분할-CP 내부인 상위 영역에 출현하지만, 구성소를 수식하는 경우는 문장의 하위영역에 출현하여 MoodP 내부에서 부사의 위계가 만족된다면 어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아 의미적으로 미명세화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미-화용적 확장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19)와 (26)처럼 *dizque*가 Mood_{Evidential}P나 Mood_{Epistemic}P로 삽입 병합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De la Mora and Maldonado(2015, 175)

27) 자료출처: <<https://www.upb.edu.co/es/central-blogs/ortografia/como-escribe-disque-o-dizque>>

는 (19a), (19b)와 같이 명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 및 (19c)를 부적격화 기능(disqualifying function)이라고 하지만, Olbertz(2002, 734)는 (19c)의 *dizque*를 증거성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19f)와 같은 표현도 가식(pretence)의 의미(ex: “너는 독립적인 척하잖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lbertz(2002: 734)는 부적격화나 가식은 청자가 특정 내용을 부적격하거나 거짓으로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대화 함의로 보았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25)는 *dizque*가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되었는지 인식적 용법, 즉 의미-화용적 확장으로 쓰였는지 구조적으로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화용적 확장일 뿐 (25)의 내부에서 드러나는 통사적 차이는 없다고 본다. 문장부사의 용법은 (24)에서와 같이 통사적으로 Mood_{Evidential}P와 Mood_{Epistemic}P를 구분하여 *dizque*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25)는 *dizque*가 구성소를 수식하는 경우 「보고」 증거성 전략으로 사용한다면 Mood_{Evidential}P로 구현되지만, 인식 용법으로 사용된다면 Mood_{Epistemic}P로 쓰이므로 삽입 병합으로 등장하는 *dizque*는 (25)의 도출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IV. 맺는말

증거성이란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문법적 범주이며 스페인어의 경우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문법적 범주의 부재로 인해 증거성 전략을 사용한다. 여러 증거성의 유형 중 「보고」의 경우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증거성의 전략으로 동사와 접속사구 연속체인 {se dice que}나 {dicen que}를 혼용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되며, 형태-통사적 특성에 입각해 볼 때 {dicen que}가 「보고」 증거성의 전략의 정의에 더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용법은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어나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어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의 스페인어는 이베리아 반도의 중세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던 「보고」 증거성의 전략인 *dizque*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화용적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dicen que}와 *dizque*가 공통적

으로 「보고」 증거성의 전략으로 사용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복문구조를 형성하고 후자의 경우 단문구조에 등장하는 부사이며, 문법화가 아닌 어휘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ikhenvald, Alexandra Y.(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07), “Information source and evidentiality: what can we conclude?”, *Rivista di Linguistica*, Vol. 19, Nol. 1, pp. 209-227.
- Alcázar, Asier(2018), “Dizque and other emergent evidential forms in Romance languages”, in Aikhenvald, Alexandra Y, *The Oxford Handbook of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725-740.
- Babel, Anna M.(2009), “Dizque, evidentiality, and stance in Valley Spanish”, *Language in Society*, Vol. 38, No. 4, pp. 487-511.
- Bogal-Allbritten, Elizabeth(2013), “Modification of DPs by epistemic modal adverbs”, in Maria Aloni, Michael Franke & Floris Roelofsen(eds.), *Nineteenth Amsterdam Colloquium*, Amsterdam: Institute for Logic, Language, and Information, University of Amsterdam, pp. 51-58.
- _____(2014), “Interpreting DP-modifying modal adverbs” Handout of talk presented at SALT 2014. http://www.nyu.edu/projects/salt2014/SALT_2014/Program_files/ModalAdverbs.pdf.
- _____ & Weir, Andrew(2017), “Sentential and possibly subsentential modification: The ambiguity of Collins conjunctions”, *NELS*, No. 47, pp. 89-102.
- Bosque, Ignacio(2001), “Adjective posi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indefinites”, in Gutiérrez-Rexach, Javier and Silva-Villar, Luis(eds.), *Current Issues in Spanish Syntax and Semantics*, Berlin, Boston: De Gruyter, pp. 17-38.
- Bresnan, Joan. & Mchombo, Sam A.(1995), “The Lexical Integrity Principle: Evidence from Bantu”,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No. 13, pp. 181-254.
- Bybee, Joan, Perkins, Revere, & Pagliuca, William(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inque, Guglielmo(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 Press,
- Covarrubias Orozco, S. de(1995[1611]), *Tesoro de la lengua española o castellana*, Madrid: Castalia.
- Cruschina, Silvio(2015), “The expression of evidentiality and epistemicity: Cases of grammaticalization in Italian and Sicilian”, *Probus*, Vol. 27, No. 1, pp. 1-31.
- Cruschina, Silvio & Remberger, Eva-Maria(2008), “Hearsay and reported speech. Evidentiality in Romance”, *Rivista di Grammatica Generativa*, No. 33, pp. 95-116.
- Dankel, Philipp(2017), “El desarrollo del evidencial dizque en las variedades del español andino en contacto con el quechua. Experiencia local y potencialidades estructurales”, in Speranza, A.(ed.), *Cuestiones de Sociolingüística. Aproximaciones a la lengua en uso*, Buenos Aires: UNM Editora (Biblioteca de comunicación), pp. 19-50.
- De la Mora, Julian & Maldonado, Ricardo(2015), “Dizque: epistemic blurring evidentials in Mexican Spanish”, *Journal of Pragmatics*, No. 85, pp. 168-180.
- Demonte, Violeta & Fernández-Soriano, Olga(2013), “Evidentials dizque and que in Spanish: Grammaticalization, parameters and the (fine) structure of Comp”, *Revista de Estudos linguísticos da Universidade do Porto*, Vol. 8, pp. 211-234
- (2017), “De la parentetización a la gramaticalización. La evolución del evidencial/modal dizque”, in A.J. Gallego, Y. Rodríguez & J. Fernández-Sánchez(eds.), *Relaciones sintácticas. Homenaje a José M. Brucart y M. Lluïsa Hernanz*, Barcelon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pp. 209-224.
- Donabédian, Anaïd(2001), “Towards a semasiological account of evidentials: an enunciative approach of -er in Modern Western Armenian”, *Journal of Pragmatics*, No. 33, pp. 421-442.
- Eberenz, Rolf. 2004. “Dizque: antecedentes medievales de un arcaísmo afortunado.” *Lexis*, Vol. 28, No. 1-2, pp. 139-56.
- Ernst, Thomas(1983),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of adverb position in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Fábregas, Antonio(2019), “Periphrases in Spanish: properties, diagnostics and research questions”, *Borealis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ispanic Linguistics*, Vol. 8, No. 2, pp. 1-82.
- Faller, Martina T.(2002), *Semantics and pragmatics of evidentials in Cuzco Quechua*,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2006), “Evidentiality above and below speech acts”, Ms., U. of Manchester.
- Fernández-Soriano, Olga & Táboas Baylín, Susana(1999), “Construcciones impersonales no reflejas”, in Bosque, I. & Demonte, V.(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1723-1778.
- Gleason, Sean(2016), “Personal versus impersonal passive in Latin infinitival clauses: Some diachronic considerations”, *Pallas*, No. 102, pp. 267-275.
- Grajales, Robinson(2017), “La estrategia evidencial *dizque* en el español de Medellín, Colombia”, *Onomázein*, No. 37, pp. 244-278.
- Griffiths, James(2015), “Parenthetical verb constructions, fragment answers, and constituent modific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33, No. 1, pp. 191-229.
- Grimshaw, Jane(2015), “The light verbs say and SAY”, in I. Toivonen, P. Csúri, & E. van der Zee(eds.), *Structures in the mind: Essays on language, music, and cognition in honor of Ray Jackendoff*, Cambridge, MA: MIT Press, pp. 79-99.
- Hopper, Paul J. & Traugott, Elizabeth C.(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odney & Geoffrey K. Pullum(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1017/9781316423530>.
- Jaeggli, Osvaldo(1986), “Arbitrary plural pronominal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No. 4, pp. 43-76.
- Jayaseelan, Karattuparambil A.(2019) “Three clause-final particles and the syntax of clausal complementation in Dravidian”, Bayer, J. & Viesel, Y.(ed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Clause Typing and the Syntax-to-Discourse Relation in Head-Final Languages”*, Arbeitspapier 130. Fachbereich Linguistik, Universität Konstanz, pp. 7-12.

- Kany, Charles E.(1944), “Impersonal dizque and its variants in American Spanish”, *Hispanic Review*, No. 12, pp. 168-177.
- Lehmann, Christian(2002),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in Ilse Wischer & Gabriele Diewald (eds.), *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18.
- López-Izquierdo, Marta(2006), “L’émergence de dizque comme stratégie médiative en espagnol médiéval,” *Cahiers de linguistique et de civilisation hispaniques médiévales*, No. 29, pp. 483-495.
- Luquet, Gilles(1992), “La apócope verbal en castellano antiguo (formas indicativas e imperativas).”, in M. Ariza *et al.*(eds.), *Actas del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Tomo.1, Madrid: Arco Libros, pp. 595-604.
- MacDonald, Lorna(1990), “Evidentiality in Tauya”, *Language and Linguistics in Melanesia*, No. 21, pp. 31-46.
- Magaña, Elsie(2005), “El paso de dice que a dizque, de la referencia a la evidencialidad”, *Contribuciones desde Coatepec*, No. 8, pp. 59-70.
- Maldonado, Concepción(1999). “Discurso directo y discurso indirecto”. in Bosque, I. & Demonte, V.(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3551-3595.
- Martínez Vera, Gabriel(2023), “On evidentiality in American Spanish and Brazilian Portuguese”, *Boreali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Hispanic Linguistics*, Vol. 12, No. 1, pp. 37-73.
- Miglio, Viola G.(2010), “Online databases and language change: The case of Spanish dizque.”, in Stefan Th. Gries, Stefanie Wulff, and Mark Davies (eds.), *Corpus-linguistic applications: current studies, new directions*, Amsterdam: Rodopi, p. 7-28.
- Nebrija, Antonio de(149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online at: <<http://www.antoniodenebrija.org>>.
- Olbertz, Hella(2005), “‘Dizque’ en el español andino ecuatoriano: conservador e innovador”, in Olbertz, H., Muysken, P.(eds.), *Encuentros y conflictos: bilingüismo y contacto de lenguas en el mundo andino*, Madrid/Frankfurt: Iberoamericana-Vervuert, pp. 77-94.
- _____(2007), “Dizque in Mexican Spanish: the subjectification of reportative

- meaning”, *Rivista di Linguistica*, Vol. 19, No. 1, pp. 151-172.
- Real Academia Española(1726-39), *Diccionario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F. del Hierro, [Ed. facsimile, 1963], Madrid: Editorial Gredos, 3.
- (200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online at: <<https://www.rae.es/dpd/>> (검색일: 2023.07.07.)
- (201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3.^a ed., [versión 23.5 en línea]. <<https://dle.rae.es>> (검색일: 2023.07.07.)
- &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2009),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Remberger, Eva-Maria(2015), “‘I didn’t say it. Somebody else did.’ - The Romanian hearsay marker CICA”, in *Redefining community in Intercultural context*, Vol. 4/1. *Selection of papers presented within 4th RCIC Conference*, Braşov, 21 May, 2015, pp. 31-41.
- Rizzi, Luigi(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Haegeman, L.(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Kluwer, pp. 281-337.
- Roberts, Ian & Roussou, Anna(2003), *Syntactic change. A minimalist approach to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UP.
- Romaine, Suzanne & Lange, Deborah(1991), “The use of like as a marker of reported speech and thought: a case of grammaticalization in progress”, *American Speech*, Vol. 66, No. 3, pp. 227-279.
- Speas, Margaret(2004), “Evidentiality, logophoricity and the syntactic representation of pragmatic features”, *Lingua*, Vol. 114, No. 3, pp. 255-276.
- Suñer, Margarita(1983), “proarb”, *Linguistic Inquiry*, No. 14, pp. 188-191.
- Travis, Catherine E.(2006), “Dizque: a Colombian evidentiality strategy”, *Linguistics*, Vol. 44, No. 6, pp. 1269-1297.

국재용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jykpato@bufs.ac.kr

논문투고일: 2023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23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22일

The morpho-syntactic properties of *Dizque* as a reportative evidential adverb in Spanish

Jaeyong, Kwa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wak, Jaeyong(2023), “The morpho-syntactic properties of *Dizque* as a reportative evidential adverb in Spanish”,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2), 1-33.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of the adverb *dizque* as one of the reportative evidential strategies (Aikhenvald, 2004) widely spread in Latin American Spanish.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Spanish *dizque* is an amalgam of the apocopated 3rd person singular form *diz* (from *dize*) of the archaic verb *dezir* ‘say’ and complementizer *que*. Travis(2006) describes that *dizque*, whose primary function is to mark reported speech and hearsay, is often paraphrasable by {dicen que} ‘they say that’, or {se dice que} ‘it is said that’, although such paraphrases are blocked in the case of marking information as doubtful or false as a semantico-pragmatic extension.

We will argue that *dizque* is an adverb used as a reportative evidential strategy in Latin American Spanish and its syntactic distribution can be effectively explained based on the split-CP structure and the parenthetical merge.

Key words Reportative evidential strategy, *Dizque*, Adverb, Amalgam